

김태오 박흥 김일로 목일신 김악 조희관 이경인...

잊혀진 작가들을 불러내다

‘광주 전남의 숨은 작가들’
이동순 조선대 교수 펴내



이동순 교수

김태오, 박흥, 김일로, 목일신, 김악, 조희관, 이경인, 정태병, 조종현, 김진섭... 오랫동안 어둠 속에 묻혀 있던 광주 전남 작가들을 한자리에 불러내, 문학사적 위치를 조명

한 책이 출간돼 화제다.

이동순 조선대(자유전공학부) 교수가 펴낸 ‘광주 전남의 숨은 작가들’(케포이북스)은 한국현대문학사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며 지역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문인들을 한 자리에 묶어낸다. 저자는 2년 반의 여정을 걸쳐,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던 문인들의 삶과 업적을 오롯이 담아냈다.

가장 눈에 띄는 이는 소년운동의 선구자며 동요 ‘강아지’를 작사했던 김태오(1903~1976) 시인이다. 김 시인은 광주시 동구 금동 124번지에서 출생한 빛고을이 배출한 문인으로, 대표작 ‘강아지’는 동요사의 한 획을 긋는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우리집 강아지는 복슬강아지/ 어머니가 빨리 가면 멍멍멍/ 풀랑풀랑 따라가며 멍멍멍...” 또한 “동무들이 오나라 봄맞이 가자”로 시작되는 그의 또다른 대표작 ‘봄맞이 가자’도 시대를 뛰어넘어 사랑을 받는 동요다.

온몸으로 전라도를 노래했던 김악(본명 김흥수·1917~1973) 시인의 고향도 광주시 동구 학동이다. 광주서중 출신으로 일본 동경미술학교에서 그림을 배운 그는 국가대표 야구선수로도 활동할 만큼 다재다능했다. 그러나 반공범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하는 도중 사망하는 비운을 맞았다.

뿐만 아니라 이 교수가 불러낸 문인 중에는 시인 김현승과 라이벌이었던 박흥(본명 박중구·1912~1962) 시인도 있다. 장성군 황룡면에서 출생한 박흥 시인은 일제 때 이리농림학교에서 광주 학생독립운동 혐의로 퇴학을 당한다. 숙명여전에서 정지용 등과 함께 강의를 했고 광주에 내려와서는 광주서중과 광주고 국어교사로 재직했다.



경성방송국 재직시절 동료들과 함께한 김진섭(앞줄 왼쪽 두번째)



목일신

김태오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자였던 동요작가 김일로(본명 김종기·1912~1984)는 장성군 북상면이 고향이다. 대표작 ‘강강술래’가 교과서에 수록되었으며, 생을 마감할 때까지 200여 편의 동요 동시를 발표했다.

동요 ‘자전거’의 작가 목일신(1913~1986)도 눈길을 끄는 문인이다. 고흥군 고흥읍에서 태어난 목 작가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격문을 쓰고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일제에 의해 강제 퇴학을 당했지만 그는 꾸준히 동요를 발표해 200여 편의 작품을 남겼다.

문화예술계의 숨은 공로자인 수필가 조희관(1905~1958)은 영광군 영광읍 출신으로 조운 등과 함께 영광의 민족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수필가이자 한글학자였으며 향도출판사 사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언론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글을 썼던 문인도 있다. 영광군 영광읍 출신 이경인(1927~2007) 시인은 <호남신문>과 <전남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그는 동인지 활동을 활발히 펼쳤고 시집과 수필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그의 공적을 기린 시비(‘노산바다’)가 백수해안도로 노출될 예정이다.

광주전남 최초 동화작가 정태병(1916~?)의 조명도 이채롭다. 영광군 영광읍에서 태어난 그는 수 편의 동화와 평론을 발표했지만 6·25때 행방불명되었다.

동요 작가이자 시인인 조종현(1906~1989)은 소설가 조정래의 부친이다. 고흥군 남양면이 고향인 그는 선암사로 출가해 불교 청년운동에 앞장섰다. 만해 한용운과 함께 비밀결사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동요와 시조를 창작했다.

목포 출신으로 순수문학을 연 수필가 김진섭(1903~?)도 눈길을 끄는 작가다. 그는 군수였던 아버지를 따라 제주를 거쳐 나주에 정착했다. 서울대 초대 도서관장과 경성방송국(현KBS) 편성과정을 지냈으며 해외문학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6·25때 남북돼 생사가 불명한 상태다.

책을 펴낸 이동순 교수는 “광주전남의 문학적 토양이 탄탄한 것은 앞선 선배들의 치열한 문학정신과 빛나는 작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광주전남의 숨은 작가들이 햇빛을 보게 되는 계기가 마련돼, 풍성한 문화 광주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음악회 ‘K-pop과 중국문화의 교류’

4일 중외공원 야외공연장서

가수 정용주·정선아 출연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4일 오후 5시 중외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미술관 가을음악회를 개최한다.

‘K-pop과 중국문화의 교류’를 테마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중국 유학생 등을 초청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오케스트라 연주, 판소리, 대중가요 및 중국가요로 구성된다.

1부 공연에서는 총장축제, 광주비엔날레 등 다수 행사에 참여한 광주팝스오케스트라(단장 서영균, 지휘자 문경재)의 가을음악 연주곡을 감상할 수 있다. 특별공연으로 주소연 명창이 ‘심청가’, ‘춘향가’, ‘사철가’ 등을 들려준다.

2부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정용주씨와 2007년 전국노래자랑 연말결선 우승자 출신인 ‘더 게이트’의 보컬 정선아씨의 노래를 감상할 수 있다. 또 최근 ‘히든싱어’ 이선희 편에서 폭발적 가창력을 보여준 정미애씨도 출연한다. 공연 무료. 문의 062-613-7153. /경원기자kiki@kwangju.co.kr



정용주



정선아

이순신과 함께 남도 700리를 걷다

‘이순신과의 동행’ 펴낸

이훈 전 광주일보 월간국장

“‘이순신 길’은 역사적 길이다. 대목마다 역사적 사실이 묻혀 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보석처럼 숨겨진 역사적 진실을 만날 수 있다.”

이훈 전 광주일보 월간국장은 여전히 이순신을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에 ‘이순신과의 동행’(푸른 역사)을 펴낸 그를 동구대인동에 자리한 작업실에서 만났다. 작업실은(그의 표현에 따르면) 높은 거리, 높은 건물 4층에 있는 ‘움막’이었다.

도심 공동화가 빛은 동구의 현주소리니 싶지만 낮은 건물이 주는 분위기는 다소 허허로웠다. 그곳에서 그는 38년 간 기자 생활로 물든 ‘가식의 언어’를 버리고 아닌 숨결이 깃든 글을 쓰고 있다고 했다.

“‘움막’은 누추하지만 기웃거리기는 객은 많다. 이곳에 동지를 둔 이후 이 총무공을 비롯해 한·중·일 기라성 같은 인물들, 일테면 임근에서 무지렁이 백성들까지 많은 반객이 오갔다.”

그의 말은 ‘이순신과의 동행’을 쓰는 동안 상상으로 만났던 역사 속 인물들을 뜻했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전장’에서는 백성들이 겪었던 참혹한 삶을 중심으로 7년 왜란을 개괄한다. 2부 ‘동행’은 저자가 심혈을 기울인 ‘이순신 길’로, 노정을 따라가며 당시의 전황을 그려낸다. 3부 ‘항진(航海)’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할 때까지의 과정을 담아낸다.

최근 영화 ‘명량’의 열풍과 맞물려 이순신 관련 서적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차



사실을 규명했다. ‘난중일기’에 나오는 지명의 오류도 잡았다. 순천왜교 성 전투 때 조명연 합군 전초기지였던 ‘불우’가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라는 것을 찾아냈다.

또한 이순신이 잠을 잤던 석곡 강정기 곡성군 석곡면 보성강변의 능과정이라는 사실과 총무공이 밭 벗고 건넜다는 천수강 물목으로 추정되는 구례읍 신촌마을 ‘나발목’도 확인했다. 발로 쥐체하고 사료에 토대를 둔 이 역사 기행서가 빛을 발하는 건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기자출신다운 치밀한 취재력과 섬세한 필력, 소설적 상상력이 주는 맛이 기존의 이순신 관련 서적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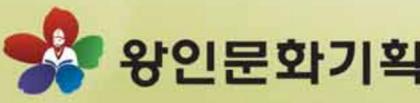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전쟁에는 영웅만 있고 백성은 없다. 흔히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듯이 영웅담에 민초들은 단지 배경일 뿐이다. 그러나 저자는 전쟁과 맞부딪친 백성을 역사의 전면 위로 불러 세웠다. 그뿐인가. ‘성웅 이순신’보다 ‘인간 이순신’에 초점을 맞춰 독자와의 거리를 좁혔다.

“‘이순신 길’은 단순히 그가 걸었던 길이 아니라 ‘이순신이 가고자 했던 길’이다. 고독하고 무겁지만 누군가는 운명처럼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순신이 걸었던 700리 길을 걷다보면 저마다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깨달을 수도 있겠다. 이 책이 미력하나마 그런 화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 각종 인쇄물
- 전단지
- 상패
- 현수막
- 각종 인쇄물
- 상패
- 전단지
- 홍보지 및 판촉물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